

[제 2025-19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5.4.10.(목)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7141 / kelly@kccla.org		담당자	Kelly Che	

LA한국문화원, 국립무용단 레퍼토리 ‘가무악칠채’ 상영회 개최

- 4월 24일 아리홀에서 농악장단 활용한 전통음악과 무용의 무한 변주 선보여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Celebrating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n National Liberation
2025 **Performing Arts Screenings**

가무악칠채
SEVEN BEATS

April 24, 2025 at 7pm
KCCLA Ari Hall

-
- ▶ 공 연 명 : 국립무용단 가무악칠채 상영회
 - ▶ 내 용 :
 - 2025년 3월 20일 (목) 7:00 pm ‘귀토: 토끼의 팔란’ (창극) – 상영완료
 - 2025년 4월 24일 (목) 7:00 pm ‘가무악칠채’ (무용)
 - 2025년 5월 29일 (목) 7:00 pm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 콘서트 (음악)
 - 2025년 7월 10일 (목) 7:00 pm ‘몽유도원무’ (무용)
 - ▶ 장 소 : 문화원 아리홀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 ▶ 주최/후원 : LA한국문화원 / 예술의 전당
 - ▶ 예 약 : www.kccla.org
 -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7141 공연담당 Kelly Che
-

국립무용단의 <가무악칠채>는 농악에서 주로 쓰이는 칠채 장단을 활용해 우리 춤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작품이다. '칠채'는 농악 행진에서 사용되는 빠르고 현란한 장단으로, 한 장단에 징을 일곱 번 치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 작품은 무대에서 직접 루프스테이션(즉석에서 리듬을 녹음해 반복 효과를 만드는 음향 기기)을 이용해 칠채 장단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라이브 연주와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더해져 긴장감 넘치는 구성으로 진행된다.

일곱 명의 연주자들은 해금, 아쟁, 장구, 징, 북, 생황 등 국악기와 드럼, 기타, 베이스 등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활용해 칠채 장단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여기에 더해 일곱 명의 무용수들은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칠채 장단을 각기 다른 움직임으로 풀어내며 독창적 에너지를 선사한다.

특히, 이 작품은 칠채 장단을 모르는 관객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관객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동시에 유머 요소를 곳곳에 녹여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립창극단의 인기 단원인 김준수가 특별 출연해 '원투쓰리 원투'라는 리듬 주문을 반복하며 3 분박과 2 분박이 섞인 불규칙한 장단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관객의 웃음과 박수가 절로 터진다. 칠채 장단의 특징을 알고 관람하면 더욱 흥미롭지만, 사전 지식이 없어도 무대 위의 에너지와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쾌하게 만끽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전통 예술이 동시대와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체험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원 LA한국문화원장은 "요즘 한국에서는 전통 예술과 현대 예술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무악칠채>는 한국 최고의 예술인들이 선사하는 퓨전 공연으로 수준급 공연을 감상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번 상영은 무료이나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사전 예약은 KCCLA 웹사이트 www.kccla.org에서 가능하다. 공연 문의는 kelly@kccla.org 또는 전화 (323) 936-7141로 하면 된다. 끝.